

# 미얀마 킷쌩(Khit San)문학의 거성(巨星) 떼입빵 마웅 와(Theippan Maun Wa)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

최재현\*

## 목 차

- I. 머리말
- II. 떼입빵 마웅 와의 생애
- III. 떼입빵 마웅 와의 작품 연구
  - 1. 기행소설
  - 2. 전원소설
  - 3. 사회소설
  - 4. 가정소설
- IV. 맺음말

## I. 머리말

영국 식민지 시대<sup>1)</sup>인 1930년대에 출현하여 시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감각의 작품 구성으로 미얀마 근대 문학을 화려하게 장식한 킷쌩 문학은, 종래의 기성 전통 문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작품 세계를 모색했던 혁신적인 신문학(新文學)이었다.

작품의 형식면에서 종래의 기성 전통 작가들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그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조교수

1) 미얀마는 1885년 11월 미얀마 마지막 왕조 쁘옹바웅(Kounbaun)조(朝)의 최후의 국왕인 띠보밍(Thibomin) 왕이 영국에 의하여 왕위를 상실함으로써, 1886년 1월 합법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1948년 1월에 독립을 함.

글의 요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료하고 어수선하게 작품을 구성한 데 반하여, 낱말 문학 작가들은 꼭 필요한 소수의 평이한 단어들만을 선택하여 군더더기가 없는 간단·명료한 문장과 간결한 문체로 이해하기 쉽게 작품을 구성하였고, 내용면에서는 기성 전통 작가들이 치중했던 종교나 탈세적인 형이상(形而上)의 심오하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평소에 경험하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형이하(形而下)의 것들을 작가의 느낌과 인상대로 묘사하였다. 종래의 고전적·봉건적 기성 전통 문학이 비인간 세계의 소재들을 전통적인 사상이나 어떤 습관에 의하여 묘사하였다면, 낱말 문학은 인간 세계의 소재를 작가가 느낀 감동 그대로 묘사하여 문학과 작품을 추구한 순수 문학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떼입빵 마웅 와<sup>2)</sup>, 조 지(Zo Ji)<sup>3)</sup>, 밍 뚜 웅(Min Thu Wun)<sup>4)</sup>은 이러한 낱말 문학의 대표적 3인의 작가로, 그 당시 미얀마 문학계에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었다. 떼입빵 마웅 와는 자서전적인 단편 소설로, 조 지는 시와 단편 소설로, 그리고 밍 뚜 웅은 시로써 미얀마 문학사에 그 이름들이 각각 장식되었는데, 특히 떼입빵 마웅 와는 농촌과 자연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정경 묘사의 자연주의 작품과, 식민지 시대 당시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농민들의 빈곤한 생활과 굴욕적인 차별, 압박, 설움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강한 동정과 연민으로 휴우머니즘의 극치를 이루는 인본주의 작품을 진솔하게 묘사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떼입빵 마웅 와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미얀마 낱말 문학의 거성(巨星)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떼입빵 마웅 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떼입빵 마웅 와의 생애

본명인 우 쟈잉 땡(U Sein Tin)보다 필명인 또입빵 마웅 와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낱말 문학의 거성(巨星) 떼입빵 마웅 와는, 1899년 미얀마 남부 지방의 몰라먀잉(Molamyain)에서 유복한 중류 계층이었던 부친 우 오웅 쉐(U Oun Shwei)와 모친 도 도 띵(Do Do Thit)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났다. 떼입빵 마웅 와가 어렸을 때에 모친 도 도 띵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모와

2) 본명은 우 쟈잉 땡(U Sein Tin)임

3) 본명은 우 떼잉 향(U Thein Han)임

4) 본명은 우 웅(U Wun)임

백모 손에서 성장해야만 하였다. 또입뺏 마웅 와의 작가로서의 재질과 능력은 그의 타 고난 천부적인 소질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의 가정 분위기에서 많이 비롯되었던 것 같다. 조부<sup>5)</sup>, 조모<sup>6)</sup>, 백부<sup>7)</sup>가 모두 문학에 취미와 소질이 있는 자들이어서, 또입뺏 마웅 와에게 문학적 영향이 크게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가정 분위기가 작품 구성의 원동력이 되는 감성 형성에 크게 작용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떼입뺏 마웅 와는 우 칫 흘라(U Chit Hla) 국민 학교에 입학하였다. 국민 학교를 졸업한 뒤, 침례교 미션 스쿨인 따다나 뽀(Thad-hana Pyu) 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싱 마하 보우다 고타(Shin Maha Boudda Gotha) 고등 학교에서 고등 학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서, 1920년에 양공(Yangon)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 해 영국 식민지 정부의 대학 정책에 반발을 한 양공 대학생들의 대규모 데모 사건이 발생하자, 또입뺏 마웅 와도 데모에 가담하여 다른 애국 학생들과 함께 양공에 중앙 민족 학교를 설립하여, 1923년 데모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며 종사하였다. 데모가 끝난 뒤, 떼입뺏 마웅 와는 양공 대학에 복학하여 1927년 나이 28세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에서의 그의 전공은 미얀마어였는데, 대학 시절 떼입뺏 마웅 와는 바강(Bagan)<sup>8)</sup> 시대의 비문<sup>9)</sup>부터 시작하여 뽀(Pyo)<sup>10)</sup>, 링가(Linga)<sup>11)</sup> 등의 시와 소설까지 여러 미얀마 문학을 공부하였다. 외국 문학도 특별히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미얀마 문학의 발달을 위하여서는 미얀마 문학만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준 높은 외국 문학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떼입뺏 마웅 와는 양공 대학에서 5개월 정도 강사 생활을 한 다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27년부터 1929년까지 2년 동안 영국 옥스포

5) 이름은 우 루 칼레(U Lu Khalei)임

6) 이름은 파 되(Phwa dwei)임

7) 이름은 따웅 와잉 지(Taun Wain Ji)임

8) 예야와디(Eyawadi) 강 중부 지방에서 일어났던 미얀마 최초의 왕조(107-1368)임. 전성기는 11세기-13세기였음.

9) 미얀마 최초의 비문은 야자꾸마(Yazakuma) 비문이라고도 일컫는 마제디(Myazedi) 비문(1112)임.

10) 제 1잉와(Inwa)시대(1364-1597) 때 번성했던 불교 서사시임. 장 수의 제한 없이 내용적으로는 불교 경전에 의존했던 4음절 1행시로서, 소재의 관계로 인하여 당시 지식 계층이었던 승려 사이에서 발달함.

11) 운문으로 된 장편시임.

드 대학의 I.C.S.(Indian Civil Service: 인도 계약 관리) 과정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1929년 영국에서 귀국하고 나서는, 정부의 ‘국가 공무원 단체’에 소속되어 식민지 체제하에서 1942년까지 면장, 군수, 도지사 등의 고위 관리로 미얀마 여러 지역을 전근다니며 근무하였다. 떼입빵 마웅 와는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때에 체험한 갖가지 사건과 다양한 인물들을 소재로 하여, 세상과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구성하였던 것이다.

1929년 나이 30세 때에, 떼입빵 마웅 와는 어렸을 때부터의 소꿉친구였던 마 흘라 땅(Ma Hla Than)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지 9개월만에 마 흘라 땅이 건강 악화로 자식 없이 죽게 되자, 1930년 킹 킹 밍(Khin Khin Myin)과 재혼하여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국가 행정 관리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얀마 문학의 발달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던 때인 1942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미얀마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자<sup>2)</sup>, 떼입빵 마웅 와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미얀마 북부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떼입빵 마웅 와의 뜻하지 않은 운명의 사건은 이때 발생하였다. 1942년 6월 6일 새벽 5시 경, 쉘보(Shweibou) 지역 깡발루(Kanbalu) 시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가따시지(Gatnshiji) 마을 관영숙사에서 강도<sup>3)</sup>의 손에 총을 맞아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날은 공교롭게도 그의 생일과 일치한다. 그의 생일인 6월 6일에 그는 운 나쁘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낫쌍 문학의 거성(巨星) 떼입빵 마웅 와는,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이없게 이 세상을 하직해 버렸다.

운문보다 산문에 특별한 천부적인 재능과 소질이 있었던 떼입빵 마웅 와는, 문학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인물이었다고, 그의 가장 큰 소망 하나는 미얀마 문학의 발달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직업은 한 국가 행정 관리이었지만, 고등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쉼없이 창작 의욕을 발휘하였다. ‘면장, 군수, 도지사 우세잉 평 I.C.S.’ 라는 이름보다 필명인 떼입빵 마웅 와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즐겨 쓴 그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느 지역에 도착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집필 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글을 썼다. 좋은 작품의 창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글도 관심을 갖고 읽곤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글에서 결점이 발견되면 비평도 서슴지 않았고, 장점이 발견되면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길지 않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25개 정도의 많은

12) 1942년 1월 미얀마에 진격한 일본군은 1942년 3월 수도인 양공을, 5월에는 미얀마 북부 지방의 요충인 만달레(Mandalei)를 점령하여, 이때부터 미얀마 전지역에서 1945년 6월까지 군정을 실시함.

13) 이름은 예요 세인지(Yeyo Seinji)임. 일본 군정 시대 때 경찰의 손에 죽음.

필명으로 논문, 권고문, 수필, 희곡,<sup>14)</sup> 단편 소설<sup>15)</sup> 등의 글을 경이로울 정도로 대거 집필하였던 것이다.

### Ⅲ. 떼입빵 마웅 와의 작품 연구

떼입빵 마웅 와의 여러 작품들 중, 문학성과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이 바로 마웅 루 에(Maun Lu Ei)를 주인공으로 하여 구성한 단편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떼입빵 마웅 와는 한 국가 행정 관리로서 미얀마 남부·북부 지방의 여러 곳을 전근다니며 자신이 보고, 듣고, 접한 여러 체험들을 소재로 하여, 때로는 기쁨의 글을, 때로는 슬픔의 글을, 때로는 연민의 글을 1929년부터 1941년까지 끊임 없이 집필하였다. 『떼입빵 마웅 와가 쓴 단편 소설들』, 『킷쌍 소설집 제 1권』, 『킷쌍 소설집 제 2권』, 그리고 『3인의 킷쌍 문학』이라는 4권의 책 속에 떼입빵 마웅 와의 단편 소설이 총 56편 실려 있는데, 이 단편 소설들 중 대부분의 작품들이 마웅 루 에를 그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위 관리인 마웅 루 에가 보고, 듣고, 경험한 체험담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면장, 군수, 도지사로서 마웅 루 에는, 여러 마을을 시찰하며 농민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였다. 농민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였다. 빈곤한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물질에 아무런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 가는 성실한 농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그 자신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꼈고, 서민들의 억울하고도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면 서민들을 향한 연민을 억제하지 못하고 영국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떼입빵 마웅 와의 단편 소설들 속의 주인공 마웅 루 에는 작가 떼입빵 마웅 와와 동일한 인물, 바로 그 자신이라는 점이다. 떼입빵 마웅 와는 지방 시찰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마웅 루 에라는 주인공의 시각을 통해 글로 표현하였는데, 마웅 루 에가 떼입빵 마웅 와 바로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마웅 루 에의 주위 환경, 즉 그의 연령, 학력, 직업, 성격, 가족 관계 등의 모든 점들이 떼입빵 마웅 와와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설 속의 주인공 마웅 루 에

14) 희곡에서는 여러 필명 중 명 명(Tin Tin)이라는 필명을 사용함.

15) 소설에서는 여러 필명 중 떼입빵 마웅 와라는 필명을 사용함.

는 작가 떼입빵 마웅 와의 분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떼입빵 마웅 와의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등을 알아 보는 데 있어서, 주인공 마웅 루 에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지침이 되기도 한다.

본고(本稿)에서 나는 떼입빵 마웅 와의 단편 소설들을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그것은 기행 소설(紀行小說), 전원 소설(田園小說), 사회 소설(社會小說) 그리고 가정 소설(家庭小說)의 네 가지 분류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행 소설과 전원 소설은 대개 떼입빵 마웅 와가 작품을 쓰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이고, 사회 소설은 중기 단계인 1932년부터 1936년까지이며, 나머지 가정 소설은 후기 단계인 1937년부터 1941년까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작품 경향면에서는, 기행 소설과 전원 소설은 자연주의 성격이고, 사회 소설과 가정 소설은 휴우머니즘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분류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떼입빵 마웅 와의 단편 소설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기행 소설

떼입빵 마웅 와의 기행 소설로서의 대표작은, 『자가잉(Zagain) 나룻배』, 『잉와(Inwa)』, 『밍랏(Minlat)』 등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1929년부터 1931년 사이에 쓰여진 단편 소설들로서, 떼입빵 마웅 와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바로 쓴 작품들이다.

떼입빵 마웅 와가 1929년 영국에서 귀국하자, 면장으로서 첫번째로 부임한 곳이 바로 자가잉이었다. 『자가잉 나룻배』는 이 시절 쓴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떼입빵 마웅와의 최초의 단편 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돌아오는 자가잉 나룻배 위에서 만난 어느 가엾은 20세 정도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단편 소설에서 떼입빵 마웅 와는 마웅 루 에를 아직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지 않다.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 소설로서의 그의 첫 작품인 관계로 그런지는 몰라도,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소설로서의 구성력을 아직 확실히 갖추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고 있노라면 소설보다는 마치 일기나 수필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잉와』라는 단편 소설은, 한때는 번영과 영화를 누렸던 찬란했던 왕도였으나, 이제는 10채 정도의 인가만이 외롭게 남아 아주 조그마한 마을로 거의 폐허화되어 버린 잉와를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 속에 고장 나기 일쑤인 낡아 빠진 현 증고 자동차를 등장시켜 폐허화되어 버린 잉와를 더더욱 연상케

하여 인생 무상의 극적 효과를 살린 점은, 떼입빵 마옹 와의 문학적 재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밍랏』은 만달레와 삐(Pyi)를 오가는 나룻배인 밍랏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와, 나룻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성격과 외모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 파고다의 역사를 삽입함으로써 역사 기행 소설과 같은 인상을 주는 단편 소설이기도 한데, 정경과 인물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2. 전원 소설

떼입빵 마옹 와는 군수로서 지방 시찰을 위하여 배가 기차를 자주 이용하여 야만 하였다. 배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통하여 보이는 강, 산 그리고 숲과 같은 자연과 농촌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정경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글로 표현하곤 하였다.

『우리 전원』, 『행복』, 『에아와디(Eyawadi)강』,<sup>16)</sup> 『연꽃』 그리고 『어느 오후』 등의 작품들이 이 전원 소설에 속하는데, 전원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경과 생활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우리 전원』은 농민들의 성실한 삶과 환희를 그린 작품이다. 이 단편 소설에서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도 물질의 아무런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 가는 성실한 농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과 정신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소박한 농민들의 인생관과도 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어쩌면 떼입빵 마옹 와 자신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만족하면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것이 곧 커다란 행복인 것을……”이라는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이것을 그의 고백처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편 소설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이름을 확실히 설정해 놓지 않은 떼입빵 마옹 와는, 『행복』이라는 단편 소설에 이르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대신,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서 군수로 근무하고 있는 마옹 루 에라는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마옹 루 에는 이후 계속 떼입빵 마옹 와의 단편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활약해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은 마옹 루 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떼입빵 마옹 와의 첫 단편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에아와디강 주변의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정경 묘사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한 손에

16) 북에서 남으로 국토의 거의 중앙을 흐르고 있는 전장 2400km, 유역 면적 41만km<sup>2</sup>에 달하는 미얀마 최대의 강임.

스틱을 쥐고 에야와디 강변을 걷는 점잖은 영국 신사와 같은 마웅 루 에의 모습을 보고, 세련되고 스마트한 때입빵 마웅 와의 외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단편 소설은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로 단장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 못생긴 딸을 위하여 돈으로 사위를 사는 유복한 지주들, 자신의 딸보다도 나이 어린 여자를 첩으로 취하는 돈 많은 부자들, 남편들이 아닌 아내들이 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 나가는 그 당시의 미안마 결혼상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통하여 1930년대의 미안마 결혼 풍속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때입빵 마웅 와의 단편 소설들 중에서 에야와디강을 배경으로 하여 쓴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보면, 때입빵 마웅 와는 에야와디강을 어지간히 좋아했었던 것 같다. 자신의 집도 이 강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지어 언제나 이 강과 더불어 생활했었던 것 같다. 마음이 울적할 때나 과다한 업무 때문에 몸이 피곤할 때에는, 이 강 주변의 평화로운 경치를 보면서 심신을 달래고 하였던 것 같다. 에야와디강을 배경으로 하여 쓴 작품들 중에서도 에야와디강의 정경 묘사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 바로 『에야와디강』이라는 단편 소설이다. 사전 조사 중, 원고, 피고 양쪽의 증거가 모두 확실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마웅 루 에는, 에야와디 강변의 정경 속에서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잠시나마 잊는다. 강변의 모래밭에서 뛰놀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들, 강에서 수영하며 물장난 치고 있는 천진 난만한 아이들, 물길면서 정답에 여념이 없는 소박한 아낙네들의 모습 등이 에야와디강 주변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차별하기만한 서정 속에서 잠시 속세를 벗어나는 상념에 잠긴다. 때입빵 마웅 와와 때입빵 마웅 와의 작품 창작의 원천이 된 에야와디강, 이것은 확실히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으리라.

『연꽃』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도 마웅 루 에는, 쌀 가격이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농민들이 따야와디(Thayawadi)에서 폭동을 일으켜 각지에서 강도들이 들끓는 매우 시끄러운 시대를 맞게 되었을 때, 자신은 군수로서 정부의 관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만 하는 딱하고 아픈 심정을, 미풍과 함께 에야와디 강물에 떠내려오는 연꽃을 바라보며 잠시 달랜다. 가고 싶은 곳으로 훨훨 떠날 수도 없이 근무지 안에만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자유롭게 강물과 함께 떠다닐 수 있는 연꽃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그러한 연꽃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웅 루 에가 아니라 마웅 루 뿌(Maun Lu Pu)<sup>17)</sup>가 되어 버렸다” 라는 문장 표현에서는, 때입빵 마웅 와의 유유머 감각적인

17) ‘마웅 루 에’의 미안마어를 우리 말로 풀이해 보면, ‘마웅’은 ‘남성명 칭호’, ‘루’는 ‘사람,’ ‘에’



기질도 발견하다.

농촌의 평화스러운 오후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어느 오후』라는 작품에서도, 마옹 루 에는 일 때문에 무거워진 머리를 한가한 오후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식힌다. 일요일이지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거 때문에 도장 찍는 일이 끝난 뒤, 지친 몸을 배에 싣고 농촌의 오후 풍경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며 속세의 생활을 잠시 잊는다.

### 3. 사회 소설

떼입빵 마옹 와는 1931년에 쓴 『강도』라는 단편 소설과 『깡자웅(Kinzaun)』이라는 단편 소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회 소설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작품 모두를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집필하였다. 떼입빵 마옹 와의 56편의 단편 소설 중 30여 편의 단편 소설이 이 사회 소설에 속하는데, 이 사회 소설의 모든 작품은 주인공 마옹 루 에 군수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다니면서, 또는 근무지 시찰 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담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픽션으로 구성된 작품은 단 한 편도 들어 있지 않다.

정부의 관리인 군수로서 떼입빵 마옹 와는, 근무차 여러 지방을 시찰하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과 접하게 된다. 이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소재로 그것을 스토리로 엮어, 그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윤리 그리고 인간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 생활 태도, 악한 성격 같은 것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곤 하였다.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풍자했고,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풍자했다. 특히, 농민과 같은 성실한 서민들을 향하여서는 강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휴우머니즘 성격의 작품들을 진솔하게 구성하였다. 그 시대에 발생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거의 빠짐없이 풍자적으로 스토리로 구성하여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작품 속에 반영했던 것이 바로 떼입빵 마옹 와의 사회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과 납세 제도 등 그 당시 사회 제도에 관하여 풍자적으로 묘사한 떼입빵 마옹와의 사회 소설로서는, 『강도』, 『깡자웅』, 『110조』, 『홍악법』 등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되어야만 했던 어느 빈민들의 딱한 사정을 연민으로써 동정

는 ‘조용한, 평온한, 유유자적한’이라는 뜻임. 따라서, ‘마옹 루 에’는 ‘유유자적한 사람’이라는 의미임. 한편, ‘마옹 루 뽀’에서의 ‘뽀’는 ‘뜨거운, 더운, 걱정이 되는’이라는 뜻임. 따라서, ‘마옹 루 뽀’는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임.

적으로 묘사한 『강도』라는 소설에서, 떼입빵 마웅 와는 그 당시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풍자한다. 작품 속에 피고로서 5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남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강도짓을 하여, 여자들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각각 고소를 당한다. 피고들 중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부부 사이로서, 그 두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지른 죄값으로 인하여 마땅히 감옥형을 받지만, 그들 사이의 이제 한 살 정도의 갓난사내아이는 정작 죄와는 무관하나 부모들과 함께 감옥에 가는 현실을 보고, 떼입빵 마웅 와는 이 상황에 적합한 국가의 뚜렷한 법이 없음을 비판한다.

군수가 타고 다니는 비교적 호화스러운 정부 기선의 이름인 『깡자웅』이라는 단편 소설은, 그 시대의 영국 식민 정부가 미얀마인들에게 징수하는 인두세의 부당함을 다룬 작품이다.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집에서 기르는 돼지나 닭을 팔거나, 자신들의 자가소비미(自家消費米) 등을 헐값으로 팔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그 당시의 서민들의 실정이었다. 나이 50세가 넘어 이제는 늙은이 측에 드는 우쵸 장(U Kjo Zan)은, 50세가 거의 다 된 부인이 부인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고, 의지할 만한 친척 하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편을 보면 인두세를 면제 또는 삭감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웅 루 에는, 세금 징수를 위하여 정부가 자신을 임명하였다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며 그 당시의 납세 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결국 우 쵸 장의 인두세 5짖(Kjat)<sup>18)</sup> 가운데 4짖을 삭감해 준 마웅 루 에는, 그 4짖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떼입빵 마웅와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110조』라는 작품에서도 떼입빵 마웅 와는 그 당시 사회 제도에 관해서 비판하다. 가족 때문에 도리 없이 형사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어느 한 남편을 동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정부 관리로서의 자신의 의무상, 법대로 범인을 투옥할 수밖에 없는 마웅 루 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에 잠기면서 괴로와한다. 남편이 투옥된 뒤, 남아 있는 부인과 어린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 속에 잠겨 있을까? 동정하여 감옥에 처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행사해야만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신의 의무대로 행하면, 사정이 너무 딱하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선불리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마웅 루 에는, 결국 자신의 의무대로 행하지만, 그의 마음 속의 연민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18) 미얀마의 화폐 단위임. 1짖은 100뻬(Pyaw)임.

대한 회의와 함께 그 당시 사회 제도에 대하여 이 작품에서 풍자한다.

그 시대의 법이 흉악법 선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폐입뺑 마옹 와는 『흉악법』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풍자하고 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악법 우 퇴(U Htwa)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젊은 시절 저지른 범죄 때문에 가장 가혹한 감옥인 외딴섬에 25년 정도 갇힌 다음 풀려 나와서도 다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는 우 퇴의 행위를 보고, 교화·선도할 수 없는 진정한 법다운 법의 부재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말(馬)』, 『군수』, 『징소리』, 『지옥』은 그 당시 미안파 농촌의 사회상을 의미 있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 시대의 고위 관리의 땡땡거리는 세력과 그 밑에서 아첨하는 무리들의 비굴함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말』은, 비에 온 몸이 흠뻑 젖어 보기 흉한 물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만과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차 있는 어느 고위 관리의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한 작품으로 등장 인물의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 속살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비에 젖은 흉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과 교만과 허세로 가득찬 고위 관리의 두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 두 모습을 통하여 모순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의미 있게 풍자하고 있다.

『군수』라는 단편 소설은 마옹 루 에 군수의 하루 일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거의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된 마옹 루 에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업무 중에서도 특히 미친 사람마저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군수인 자기 자신이 점검해야 하는 현실과 비유하여 불합리하고 모순된 그 당시 농촌 사회상을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다. 미친 사람의 발병 원인에 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한, 마옹 루 에 자기 자신이 광인(狂人)이 될 것 같은 심정을 리얼하게 묘사한 부분에서는, 폐입뺑 마옹 와의 작가로서의 기법에 대한 문학적 재능을 알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당시 농촌의 징소리에는 여러 성격의 징소리가 있었다. 그 징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듣기 좋은 징소리와 듣기 싫은 징소리가 있었다. 승려의 설법을 알리는 징소리나 세금 경감을 위한 회의 소집을 알리는 징소리는 듣기 좋은 징소리였고, 서민들을 울리는 동장 집에서 두드리는 징소리는 듣기 싫은 징소리였다. 이러한 징소리와 징소리에 민감한 그 당시 서민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폐입뺑 마옹 와는 『징소리』라는 단편 소설에서 진솔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폐입뺑 마옹 와의 단편 소설들 중에서도 형식면에서 그 문체가 가장 간결하고도 간단·명료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폐입뺑 마옹 와다운 단편 소설로 특히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당시 기성 정통 작가들에게 폐입뺑 마옹 와가 미안파 문학의 파괴자라고 꽤나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어부들의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보면서 그 당시 사회의 세태를 비유하여 풍자한 『지옥』이라는 단편 소설은, 떼입빵 마웅 와의 온화한 성품의 인간미 소유자인 면모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생선 머리를 칼로 거세게 자르고 있는 아낙네들의 난폭한 행동을 보면서 마웅 루 에는 지옥을 연상한다. 비록 생선이긴 하지만 생명이 있는 생명체의 머리를 하루에도 3, 4천번씩 난폭하게 자르고 있는 그녀들이 과연 사람의 머리를 잔인하게 자를 수 있지도 않겠는가 하고 그 당시의 사회를 지옥과 비유한다. 지옥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하나 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이 무서운 사회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고 싶어하는 떼입빵 마웅 와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휴우머니즘 성격의 소유자임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930년대 영국 식민지 시대 때의 미얀마 경제의 어려움을 떼입빵 마웅 와는 『경매』, 『이 험악한 시대』, 『실업자』라는 작품들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의 경제 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정책 하나가 바로 경매라는 제도였다. 이 경매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부추겨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그 당시 서민들에 대한 착취 수단의 하나였다. 결국 경매 제도는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심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조장시켜 도덕적으로까지 타락시키는 등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매』라는 단편 소설은 이러한 영국 식민지 시대 때의 경매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당시의 세계 경제 공황의 영향은 미얀마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 시대의 미얀마 경제 상황을 『이 험악한 시대』라는 단편 소설 한 편만을 읽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그 당시 미얀마의 낙후된 경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실업자』라는 작품에서도 떼입빵 마웅 와는 경제난 때문에 고등 학교나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학사들까지도 구직난에 허덕이는 그 당시 미얀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마웅 루 에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나이 20세 정도의 이목구비가 수려한 어느 한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시대의 고등 교육을 받은 자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시골 학교에 교사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명예만을 생각하여 일자리가 없는 도회지에서만 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허영으로 가득찬 허황된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 당시 미얀마 농촌의 생활 환경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산간 벽지』, 『농

촌의 명예』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마을의 3, 40호 정도의 호수 가운데 목조 가옥이나 미얀마 전통 가옥 한 채 없이, 그것도 역새로 인 지붕에, 대나무로 벽과 바닥과 기둥을 한, 겨우 비 정도 피할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오두막집들, 그러한 오두막집 밑에는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여 집안에는 그들의 오물 냄새가 가득 풍기고, 마을 전체를 통틀어 봐도 화장실 하나 없는 그러한 그 당시 농촌의 비위생적이고도 열악한 생활 환경이었다. 떼입빵 마옹 와는 『산간 벽지』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내 마음 아파한다. 한편, 농촌의 교육 문제도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데, 등장 인물인 승려 우자와 나(U Zawana)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그들을 거의 방임 상태로 내버려 둔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일정한 날과 시간도 없이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교과 과정도 아무런 체계가 없이 교사는 강의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강의한다. 점심 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은 이제 한 명도 교실에 남아 있지 않고, 개울에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질에 여념이 없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학교 생활, 학생들은 마치 야수와 다를 바 없다고 한탄을 하며, 그 학생들 중에 장래 4, 50년이 지나서 누군가 미얀마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당선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옹 루에의 마지막 독백이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농촌의 명예』라는 단편 소설도 『산간 벽지』처럼 농촌의 교육 문제를 그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글을 깨우치면 연애만을 일삼는다고 여학생들이 글을 깨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요리법만을 가르치는 어느 교사 부인의 사고 방식에 대하여 『마옹 루에』는 비판을 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사 부인의 믿어지지 않는 문맹에 대하여서는 그 비판의 절정을 이룬다.

떼입빵 마옹 와는 그 시대에 발생했던 중요한 국가 사회 문제를 그의 작품 속에 자세하고도 정직하게 과감히 묘사한 용기 있는 작가였다고 볼 수 있겠다. 1932년 11월 미얀마를 인도와 분리할 것인가, 계속 부속시켜 놓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sup>19)</sup>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 바로 『양자 택일』이라는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국과 미얀마간에 얽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역사적인 인물들과 함께 밝힘으로써 마치 역

19)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초창기에는 인도의 한 보호령 및 부속령으로서 인도 총독에 의하여 통치되었으나, 1932년 인도로부터의 분리의 필요성이 영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결국 1935년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영국 국왕을 대신하는 총독에 의하여 직접 통치되게 되었음.

사 소설과 같은 성격을 띠기도 한다. 분리와 부속 문제를 두고 승려들간에, 일반 대중들간에, 일반 대중들과 승려들간에, 가족들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웅 루 에 자신은 정부 관리이기 때문에 분리와 부속 어느 쪽에도 선불리 동조할 수 없으나, 마음만은 분리 쪽을 희망하고 있다. 결국, 미얀마인들에게 불화를 조성시킨 이 문제에 대하여 『떼입뻥 마웅 와』는 그의 날카로운 펜으로 영국 식민지 통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작품의 끝을 맺는다.

『선거』라는 단편 소설은 이름만 민주 선거인 그 당시 선거 제도에 대하여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선거 전에 입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돈이나 기타 음식이나 물질로 매수하여 부당하게 표를 얻는 사실을, 떼입뻥 마웅 와는 그의 특유한 문장력으로 이 작품에서 강도 있게 비판하고 있다. 한 선거에서 어느 맹인의 표는 “누구의 투표함에 투표하고 싶습니까?”하고 마웅 루 에가 그 맹인에게 물어, 자신이 직접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맹인 대신에 투표하는 비밀 선거가 아닌 사실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930년 미얀마에 영국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농민 대표 사야 쌍(Shaya San: 1876-1931)<sup>20)</sup>이 이끄는 갈로웅(Galoun)<sup>21)</sup> 반란단이 무기로 무장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 반란 사건이 발생한다. 떼입뻥 마웅 와는 『반란의 열기』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 농민 반란을 그 소재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없지도 않았던 반란의 주동자 사야 쌍이 정부군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게 되자, 반란에 참여했던 사야 쌍의 부하들은 반란군에서 이체는 강도로 그 인생이 바뀐다. 강도로 변한 반란군들은 약탈과 살생으로 선한 농민들을 괴롭힌다. 사야 쌍의 농민 반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떼입뻥 마웅 와의 작품 세계는 민족 정신이나 독립 정신, 혁명 등의 정치적 성격은 매우 약함을 본다. 미얀마 최대의 저항 작가로 유명한 떼잉 페 밍(Thein Hpe Myin)<sup>22)</sup>은 『반란의 열기』에 대하여 떼입뻥 마웅 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그와 같은 갈로웅 사건을 우리들은 필요로 한다. 마음으로 격려한다. ‘대학생 자치 협회’나 ‘도 버마 아씨아웅(Dou Bama Asiayoun: 우리 버마당)’<sup>23)</sup> 등은 법적인 조직

20) 본명은 마웅 쌍 샤(Maun San Sha)임. 1876년 쉘보(Shweibou) 지역에서 태어남.

21)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면조신(人面鳥身)의 생물임. 1930년 따야와디 농민 반란 때 사야 쌍과 그 지배하의 농민들이 호칭으로 사용함.

22) 본명은 우 떼잉 페(U Thein Hpe)임.

23) 1930년에 결성된 민족주의 정치 단체임. 당원들이 이름 앞에 따킹(Thakhin)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에서부터 따킹당이라고도 불리움.

이기 때문에 무장법을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지지할 수 없지만, 사야 쌍이 이끄는 갈로웅들의 제국주의 저항 정신에 우리들은 경의를 표한다. 떼입뺱 마웅 와는 사야 쌍이 이끄는 갈로웅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반영해야만 하는 작가 입장에 서지 않았다. 그는 국민 쪽이 아니라 식민지 정부 쪽에만 서 있고, 그에게는 관리 정신만이 넘쳐 있다. 영국 제국주의자 쪽에서만 볼 수 있는 I.C.S. 고위 관리의 관념만으로 가득차 있다. 그 증거는 1933년 10월에 간행된 간다로까(Gandaloka) 잡지 속에 실린 떼입뺱 마웅 와의 『반란의 열기』라는 단편 소설이다. 만일 그가 진실을 반영하는 국민 쪽에 서 있는 작가 정신만 있다면, 혹은 I.C.S. 관리 신분이어서 작가 정신 그대로 작품을 쓸 수 없다면, 사야 쌍 사건에 관하여 작품을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떼입뺱 마웅 와는 『반란의 열기』를 써서 사야 쌍 사건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풍자했다. 비난했다.’ (Thein Hpe Myin, 1975. Tet Khit Tet Lu Tet Houn Ji Thein Hpe, Than Lwin Sa Pe, 110-111 )

『반란의 열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 떼입뺱 마웅 와의 작품 세계는, 떼입뺱 마웅 와가 지적했던 것처럼 민족 정신이나 독립 정신, 혁명 등의 정치적 성격이 희박함은 사실이다. 한 정부 관리로서 군수 떼입뺱 마웅 와의 일은, 그가 관리하는 지방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정부에 저항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군 때문에 매우 곤경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영국 제국주의 통치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반란의 발생 동기가 어떻든간에 반란군들은 폭도로 변하여 힘이 약한 선량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관리라는 그의 입장, 학자풍의 다소 고지식하고도 봉건적인 그의 사고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떼입뺱 마웅 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 4. 가정 소설

그 당시의 미얀마 농촌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던 떼입뺱 마웅 와는, 1936년의 말기에 이르르면 농촌 사회상에 관한 글들을 이전처럼 별로 쓰지 않는다. 농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 그의 시선을 돌려 가정에서 작품의 소재를 구한다. 군수 마웅 루 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장(家長)으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의 마웅 루 에의 가정 생활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하여 1937년부터 1941년까지의 떼입뺱 마웅 와의 10여 편의 가정 소설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그의 가족들 등 가정의 생활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여 편의 가정 소설에서 떼입뺱 마웅 와는,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개 아메이트(Ameit)이나 아들 마웅 루 흐웨(Maun Lu Hmwei) 등을 소재로 하여 가정의 생활상을 휴머니즘 성격의 글로 묘사하고 있다.

떼입빵 마웅 와는 개를 꽤나 사랑하였던 것 같다. 그는 집에 개를 몇 마리 길러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워하였던 것 같다. 그의 단편 소설들 중, 『그 두 마리』, 『사랑의 불꽃』, 『애기 아빠』, 『아메잇』 등이 그의 애완용 개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 두 마리』라는 단편 소설에서 두 마리의 개가 등장한다. 그 개들의 이름은 아메잇과 뵈조(Lweizo)이다. 아메잇과 뵈조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인 칭(Chin)족의 한 작은 마을의 이름들인데, 떼입빵 마웅 와가 그 칭족의 마을에 지방 시장 차 갔었을 때 특별히 부탁해 가져 온 칭 개였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이름들을 따서 붙인 것이다. 수컷인 아메잇과 암컷인 뵈조는 생김새와 버릇 등이 서로 매우 다르다. 떼입빵 마웅 와는 이런 점들을 이 작품에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아메잇이 암전하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마웅 루에는 아메잇을 더 사랑하고, 아내는 행동이 암전하지 못한 뵈조를 아메잇보다 더 사랑한다. 행동이 암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애착이 더 간다고 말을 한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도 이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떼입빵 마웅 와의 성격을 다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품위가 있고, 성실하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유유상종(類類相從)<sup>24)</sup>이라는 한 속담을 통해서 말이다.

『사랑의 불꽃』이라는 작품도 아메잇과 뵈조에 관한 이야기이다. 특히, 이 작품은 아메잇과 뵈조 이 두 마리의 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젊은이들의 연애 결혼을 선호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마웅 루 에 부부는 아메잇과 뵈조 두 마리의 개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두 마리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상대가 각각 따로 있다. 떼입빵 마웅 와는 이 작품에서 기성 세대들의 많은 지탄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그 당시 젊은이들의 남녀간의 연애 문제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아메잇과 뵈조 두 마리의 개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표출해 낸, 떼입빵 마웅 와의 작품 창작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생각된다.

『애기 아빠』라는 단편 소설도 아메잇과 뵈조 두 마리의 개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하고 말을 잘 듣는 아메잇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웅 루 에의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그린 작품이다.

『아메잇』이라는 단편 소설은 아메잇을 의인화하여 마웅 루 에와 아메잇과의 주고 받는 이야기를 대화체 형식으로 쓴 작품이다. 개를 의인화하여 그들도 인간처럼 느낌이나 감정, 자신의 의사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세히 분석·해부하여 묘사한 작품으로서, 심리 소설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마웅 루 에가 아들 마

24)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옹 루 흐뵈를 얻자, 이제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아들만 사랑한다고 아메잇이 마옹 루 에에게 불평을 늘어 놓는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는, 아메잇이 병들어 가 없게도 죽게 된다. 마옹 루 흐뵈가 몸이 아픔과 동시에 아메잇도 병이 들자, 마옹 루 에는 자신의 아들 병 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메잇을 돌보지 못해, 결국 아메잇의 시체를 목욕탕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메잇이 죽음으로써 떼입빵 마옹 와의 개를 소재로 한 일련의 시리즈 같은 작품의 구성도 막을 내린다.

떼입빵 마옹 와는 1937년 12월 25일 아들 마옹 루 흐뵈를 얻는다. 아들을 얻자 떼입빵 마옹 와는 꽤나 기뻐했던 것 같다. 그의 가정 소설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들 마옹 루 흐뵈를 등장 인물로 하여, 마옹 루 흐뵈의 성장해 가는 과정과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마옹 루 흐뵈』, 『가정 교육』, 『염소 이야기』, 『꼬치꼬치』라는 작품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마옹 루 흐뵈』라는 단편 소설은 마옹 루 흐뵈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그 여정이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로써 묘사된 작품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마옹 루 흐뵈가 ‘나’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의 떼입빵 마옹 와의 작품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색다른 느낌을 갖게도 하는데, 한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놀라운 생명 창조의 역사까지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과학 소설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떼입빵 마옹 와는 두 살 반 정도의 나이에 도달한 마옹 루 흐뵈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 교육』이라는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 마옹 루 흐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르러 매우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로 자라가지만, 마옹 루 에가 주의 주는 것도 듣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보채고, 시끄럽게 한다. 밤에 잘 때에도 제때 자지 않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않는 등, 귀찮을 때가 없지 않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자식들이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문제도 생겨남을 절실히 느끼면서 마옹 루 에는 조기 가정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염소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은 아버지 마옹 루 에와 아들 마옹 루 흐뵈 부자간의 훈훈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마옹 루 에는 세 살짜리 아들 마옹 루 흐뵈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염소 이야기를 들려 주곤 한다. 염소라는 발음이 잘 안 되어 ‘맘소’라고 발음하는 마옹 루 흐뵈가 지극히 사랑스러운 마옹 루 에인 것이다. 마옹 루 에의 애정이 가득 담긴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부자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이 묘사된 작품이다.

1941년 11월에 집필한 『꼬치꼬치』라는 작품은 떼입빵 마옹 와의 마지막 단편 소설이다. 떼입빵 마옹 와가 1942년 6월 6일 강도의 손에 억울하게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단편 소설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마옹 루 흐뵈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

옹 루 흐웨는 나이가 네 살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는 곧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을 좀 할 수 있게 되면, 호기심 때문에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아이들의 본능이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은 그 본능대로 꼬치꼬치 캐묻곤 하는 것이다. 마옹 루 흐웨도 예외는 아니었다. 알고 싶은 것을 때를 가리지 않고 질문하곤 하였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꼬치꼬치 캐물을 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짤막하게 적당히 말을 끊어서 답변할 때가 있다. 이처럼 짤막하게 말을 끊어서 답변할 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캐물게 되면, 어른들은 이제는 소리 지르며 아이들을 쫓아 버리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설새없이 생겨나는 호기심은 점차 수그러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마옹 루 에도 꼬치꼬치 캐묻는 마옹 루 흐웨의 질문에 만족하도록 답변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보통 다른 부모들처럼 결국에 가서는 한계를 느껴 버린다. 때입빵 마옹 외는 단편 소설로서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꼬치꼬치 캐묻는 사랑하는 아들의 질문에 만족하도록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말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때입빵 마옹 외는 1937년부터(정확하게는 1936년 말기부터) 그의 시선을 사회로부터 가정으로 돌려 가정 소설만을 고집했다. 사회의 여러 면에서 그 당시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던 때입빵 마옹 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의 작품 경향을 이처럼 돌연히 바꾸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다른 대상에는 이제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되었을까? 도지사로 승진되어 지방 시찰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작품 소재 구하기가 이제는 어렵게 되었을까? 1930년부터 발생하게 되는 민족 운동이 점점 거세어지자, 학자풍의 봉건적인 사고 방식의 그는 사회라는 한 조직에 염증을 느껴 버렸을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의문이다.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본 때입빵 마옹 외는, 현실에 충실하고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투철한 인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자풍의 봉건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때입빵 마옹 외의 성격과 관리라는 그의 입장으로 마루어 보면, 그 당시 거세어져만 가는 민족 운동에 그는 정부의 입장에 섬으로써 미동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때입빵 마옹 외가 후기에 작가로서의 그의 시선을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려 가정 소설만을 고집했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안마, 그의 조국을 사랑했던 때입빵 마옹 외는, 투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의 해결책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미안마 킷쌍 문학의 거성 떼입빵 마옹 와의 생애와 그의 단편 소설들을 통하여 작품 세계를 알아보았다.

종래의 기성 전통 문학의 고전적·봉건적 작품 경향을 지양하고,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새로운 감각의 작품 구성으로 시대에 도전했던 킷쌍 문학은, 그 시대에 있어서 혁신적인 신문학(新文學)이었다. 문단 등장 당시부터 기성 전통 작가들과 문학적인 의견 대립으로 많은 마찰을 빚기도 했던 킷쌍 문학은, 미안마 문학 애호가들에게 높은 반향을 일으키며 대적으로 한때 킷쌍 문학의 아성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킷쌍 문학의 거성 떼입빵 마옹 와는 그다지 길지 않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문학성과 작품성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창작 의욕으로 킷쌍 문학의 대명사처럼 이 문학을 주도해 나갔다.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 지방 시찰하며 보고 느낀 자연과 전원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정경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초기의 자연주의 경향의 기행 소설과 전원 소설,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세태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중기의 휴우머니즘 경향의 사회 소설, 그리고 가정에 관한 소재들을 그 내용으로 하여 가정상을 묘사한 후기의 가정 소설 등으로, 떼입빵 마옹 와가 미안마 문학계에 끼친 영향과 업적은 매우 크다. 특히, 떼입빵 마옹 와의 분신인 주인공 마옹 루 에의 시선을 통하여 그 당시 발생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파헤쳐 그 시대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중기의 사회 소설은, 떼입빵 마옹 와의 문학적 재능의 극치를 이루어 가장 떼입빵 마옹 와다운 작품의 결정체들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정치적 성향보다는 학자 기질의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떼입빵 마옹 와는, 식민지 시대 그 당시 거세어져만 가는 민족 운동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시선을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려 후기에 가정 소설만을 고 집했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떼입빵 마옹 와와 킷쌍 문학, 킷쌍 문학과 떼입빵 마옹 와, 이것은 뗄 수 없는 운명의 만남이었으리라. 떼입빵 마옹 와의 길지 않은 못다한 인생이 너무 아쉽다. 떼입빵 마옹 와, 그가 이 세상에서는 사라져갔지만, 그의 작품 세계 속에서는 지금도 살아 여실히 생생하게 숨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 마옹 루 에이다. 떼입빵 마옹 와의 분신 마옹 루 에는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Theippan Maun Wa. 1966a. *Theippan Maun Wa I Khit San Sa Pe A Htwe Dtwe*. 바강출판사(떼입빵 마웅 와의 킷쌍 문학들).
- \_\_\_\_\_. 1966b. *Theippan Maun Wa I Sit A Twin Ne Zin Hmat Dan*. 바강출판사(떼입빵 마웅 와의 국내에서의 전쟁 일기).
- \_\_\_\_\_. 1976c. *Sa Pe In Ce Hmu*. 국민출판사(문학 문화).
- U Hpe Maun Tin. 1938. *Khit San Pon Byin Du Ta Ya Dwe*. 미얀마문학진흥회(킷쌍 소설 제 2권).
- \_\_\_\_\_. 1976a. *Khit San Pon Byin Mya Pa Hta Ma Dwe / Du Ta Ya Dwe. Hnit Twe Paun*. 바강출판사(킷쌍 소설들 제 1권, 제2권).
- \_\_\_\_\_. 1976a. *Myan Ma Wutthu Thamain A Sa Hnin Thu De Tha Na Sa Dan Mya*. 세잉방마잉출판사(미얀마 문학사 초기와 연구 기록들).
- Thein Hpe Myin. 1974. *Sa Pe Hswe Nwe Bwe*. 양공시(문학토론회).
- \_\_\_\_\_. 1975. *Tet Khit Tet Lu Houn Zi Thein Phe*. 땅르 윈 문학(떼킷떼루 승려 떼잉 페).
- Zo Ji, Min Thu Wun. 1966. *Theippan Maun Wa I Wutthu Hsaun Ba Mya*. 짜뻬베이망(떼입빵 마웅 와의 소설들).
- Thoun Bwin Zain. 1962. *Khit San Sa Pe*. 샤마와(킷쌍 문학).
- U Tin U. 1974. *Myan Ma Sa Ye Hsa Ya A Bi Dan Dho Ma Hout Hnit Hse Ya Su Hnit Co Ca Do Myan Ma Sa Ye Hsa Ya Mya*. 상비아출판사(미얀마 작가상과 20세기 이후 미얀마 작가들).
- Tait So, Min Yu We. 1967. *Sa Zo Hwin Thu De*. 바강출판사(시인과 연구가).
- Maun Dho. 1970. *Sa Pe A Min Sa Pe A Twe*. 하잉지출판사(문학관).
- A Hte Ba Ma Nain Gan Sa Ye Hsa Ya A Thin. 1967. *1328 Sa Pe Sa Dan Mya*. 찌브와예봉출판사(1966 문학들).
- U Houn Wun, U Khin E. 1975. *Myan Ma Hmu Pa Hta Ma Dwe 1920 - 1970/ Myan Ma Wutthu*. 양공시(미얀마 1집[1920-1970] 미얀마 소설).
- U Hla. 1970. *Thu Sa Dwe Ga Pyo De Theippan Maun Wa*. 찌브와예봉출

- 관사(그의 작품이 말하는 떼입빵 미옹 와).
- U Thein Han, 1968. *Te Ka Thou Pinya Pa De Tha Sa Zaun A Twe Thoun / A Pain Thoun / Myan Ma Ka La Bo Wutthu Pit Pou La Bon Le La*. 대학출판부(대학의 다양한 문학 작품집 제 3권, 제 3장, 미얀마 근대 소설의 성장 과정 연구).
- Win Lat, 1970. *Khit Thit Ga Bya Khit Thit Sa*. 링잭 출판사(근대시 근대 작품).
- Sa Out Sa Pe*, 1973. 싸뻬베이망(문학 작품).
- Myan Ma Swe Zoun Jan*, 1963. 싸뻬베이망(미얀마 백과 사전).
- Minn Latt, 1962. "Main Streams in Burmese Literature." *Journal for the Modern and Ancient Cultures of Asia and Africa*. Vol. I, No. 1(1960)-Vol. III, No. 62.
- Dagmar Beckova, 1966. "In Burma, Along the Trail of Khitsan." *New Orient*. Vol. V. No. 3.
- Aung San Suu Kyi, 1987. *Burma and Japan: basic studies on their cultural and social structure, Socio-Political Currents in Burmese Literature 1910-1940*. Tokyo.
- 南田みどり, 1981. 『テイン베-ミンとキッサン文學』, 大阪外國語大學學報第52号.
- 服部正一, 1968. 『テイパンマウンワの作品を通して觀察したビルマ人の人間性』, 大阪外國語大學學報 第19号.
- 大野 徹, 1972. 『ビルマの社會と經濟』, アジア經濟研究所.
- 大野 徹, 桐生 稔, 齋藤照子 共著, 1975. 『ビルマその 社會と價值觀』, 現代アジア出版會.
- 綾部恒雄, 永積 昭 編, 1983. 『もっと知りたいビルマ』, 弘文堂.
- 世界短篇名作選東南アジア編, 1985. 新日本出版會.